

# 꿈을 향한 새로운 응원

##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을 마치고

이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토론회를 준비 중인 로스쿨생

지난 8월 12일부터 10일간 있었던 예비법조인 전문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 동안 조서관에게 직접 들었던 중재와 조정에 관한 이야기는 생생했습니다.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심리과정을 직접 참관하는 경험을 통해 앞서 배운 이론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ADR에 대한 탄탄한 기본기를 다지는 데에 그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실무수습 교육은 인문학, 수사학(修辭學) 등 다양한 영역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관한 수업이었습니다. 쉽게 접해볼 수 없었던 과거의 법전에 대한 수업은 현재를 살아가는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동시에 학생들은 매일 토론회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실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건들을 각색하고, 각 쟁점 별로 찬반논거를 법조항과 판례를 통해 뒷받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처음 만나 어색하던 학생들의 사이가 매일 함께 토론회 준비를 하며 가까워진 것은 물론이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법리를 구성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이끌고 다독여주시는 담당 변호사님 덕분에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주간의 기간 중 하루, 시간을 내어 권 성 위원장님과 함께 한강변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더러워진 길을 치우는 것을 넘어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뿌듯함을 얻어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수업을 진행하시던 위원회의 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법률과 판례에 묻혀 살다 보면 가끔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꿈을 좇아 로스쿨에 입학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도 가끔 이 길이 옳은 걸까 스스로를 의심해보기도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실무수습은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쌓을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교육을 넘어, 이곳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너는 잘하고 있다는 힘을 실어주는 응원이 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계신 모든 분들과 위원장님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고민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고민 덕에 저는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감히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좋은 기억과 함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걸음을 다시 달릴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서양 다이닝 에티켓 교육